

불교미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제 1회 붓다아트페어 기획위원 김영수 작가

불교미술은 신앙의 대상일 뿐이라는 인식은 불교미술의 현대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 불교미술도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장르로 인식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는 불교미술 작가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인지 모른다. 한국 현대 불교미술의 현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붓다아트페어 기획위원을 맡은 김영수 작가



제1회 붓다아트페어가 3월 7~10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다. 그림은 붓다아트페어의 조감도.

제1회 붓다아트페어가 3월 7~10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다. 2013년 불교박람회와 더불어 열리는 이 행사는 불교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기획위원 김영수 작가(불교박물관 집행위원장)는 불교미술을 대중화해보자는 취지에서 아트페어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갤러리전 불교4대 천왕전 등 기획 부스 대중맞이 준비 불교미술의 새로운 장 마련

김 씨는 “한국 불교미술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 유명 불교미술인을 초청하고, 역량 있는 현대 미술작가들을 발굴해 대중에게 알리고자 기획된 전시다. 또한 대학 생 졸업 작품 등 신인 작가들의 발굴에도 힘을 예정이다. 각 차에 불교 미술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를 알릴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진 작가 발굴하는 동시에 기성작가들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술시장을 뜻하는 아트페어(Art Fair)는 보통 몇 개 이상의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말한다.

즉 그림을 팔고사는 시장이 아트페어인 것이다. 이는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활성화하고 화랑간의 정보교환과 작품 판매 촉진, 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아트페어는 작가들의 작품을 알리고 이

것이 판매로 이어지는 하나의 장이 된다. 따라서 작가들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트페어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임이 분명하다.

김영수 작가는 “그동안 불교미술이 활성화 되지 못했던 이유는 불교미술을 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신앙의 대상 불교미술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대미술의 관점에서 창작된 작품들도 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아트페어에서는 이런 불교미술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다. 또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새로운 장을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불교미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획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화랑, 불교미술단체, 전통 및 현대 불교작가, 신진 작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 30여 개가 선보인다. △갤러리전(8부스)△협회 및 단체전(5부스) △불교전통 4대천왕전(8부스) △청년 불교미술Now&Here전(7부스)△신진작가 공모전(2부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갤러리전은 공갤러리 나눔 공예갤러리 선화랑 선아트플러스 담갤러리 갤러리M 불일미술관 골목 불파미술관 고도갤러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작가는 “불교적 마인드를 가진 갤러리들이 많이 있지만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 많다. 갤러리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뱀에 관한 모든 것 보러 오세요”

국립민속박물관 ‘상상과 현실...’ 전

2013년 뱀의 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은 ‘뱀의 생태와 문화’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2013년 계사(癸巳)년 뱀띠 해를 맞아 ‘상상과 현실, 여러 얼굴을 가진 뱀’ 전시를 2월 25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십이지 뱀그림, 해상명부도 8폭병풍, 이삼만 작가의 ‘산광수색’ 등 4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화조도의 뱀모아리

국립민속박물관 박수환 학예사는 “십이지 동물은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다. 이 가운데 여섯 번째인 뱀은 불사(不死)와 재생(再生)의 상징이자 남남동쪽을 수호하는 방위의 신이다. 이번 전시는 2013년 계사(癸巳)년 뱀띠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얼굴을 가진 뱀의 문화적 맥락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 전시는 상상과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변화무쌍한 동물

뱀에 대한 전시로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는 ‘십이지신 뱀’, 2부는 ‘상상 속의 뱀’, 3부는 ‘현실 속의 뱀’, 4부는 ‘상상과 현실의 접합점-뱀신앙’이다.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은 지난해 12월 21일 뱀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문화평론가 이어령 씨를 초청 ‘한국 문화 속의 뱀’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부는 뱀의 생태·역사·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뱀에 대한 오해와 이해’ △2부는 ‘한중일 삼국의 뱀에 대한 융합적 고찰’ 등을 진행했다.

정혜숙 기자

시민들이 제작한 판화 달력 ‘눈길’

고판화박물관...목판화 달력 전시회

강원 원주 명주사의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의 목판화 달력 전시회가 1월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문화형 템플스테이 ‘술 속 판화학교’의 참가자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눈길을 끈다.



고판화 박물관의 군장병 전시회

이 프로그램은 노인회 시민, 학생과 학부모, 군 장병 등 연인원 4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양한 판화 및 목판화들을 제작했고 이 중에서도 뛰어난 작품을 선별해 제작한 달력으로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에는 군장병과 노인,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이 만든 목판화 달력을 주고받으면서 따뜻한 소통을 위한 행사도 마련해 눈길을 끈다.

한선학 관장은 “목판 달력으로 이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학생들과 군인들의 따뜻한 소통은 장병들의 사기진작으로 이

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온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삶이 따뜻해지는 새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고판화박물관은 다양한 계층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교류활동을 넓혀 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거장의 70년 회화사 한눈에 본다

광주 무각사 백영수 회고전

광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주지 철학)에서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무각사는 광주시립미술관과 함께 2월 24일까지 ‘한국미술사의 산증인’이자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백영수 화백의 회고전을 펼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지적인 아름다움’과 ‘명상적인 정신성’을 살펴볼 수 있는 105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이는 백영수 화백의 70년 회화의 전모를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1940~50년대 전시 리플렛, 방명록, 각종 도서(백영수 화백의 삽화 수록), 화구 등 희귀한 자료들도 함께 전시돼 해방이후 초창기 한국미술사 및 문화계의 시대상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서양화가 백영수 씨는 1922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으며, 두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다.

일본 오사카 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으며 1945년 귀국하여 목포고등학교 미술 교사,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해방 후 최초의 국전이었던 미 군정 문

교부 주최 조선종합미술전 심사위원, 대한미술협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한국 현대미술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1977년 이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22번의 개인전을 비롯해 단체전과 살롱전 등 100여 차례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백영수 화백은 단순한 화면 안에 가우똥한 얼굴을 한 모자상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하늘로 얼굴을 향한 모자상은 눈을 감고 행복에 젖은 듯, 꿈에 젖은 듯 천상과의 교감을 통해 현실을 넘어선 순수성을 보여준다.

최소한으로 단순화되고 함축적인 백영수의 가족 풍경은 사랑과 평화, 행복의 참



백영수 작가는 2월 24일까지 광주 무각사에서 회고전을 갖는다.

의미에 대한 메시지다. 2011년 초 영구 귀국한 작가는 현재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귀국 후 제작한 신작 30여점이 포함되어 있다. (062)383-0108 정혜숙 기자

국립중앙박물관...박물관 나들길 개통

전통문화유산의 보고인 국립중앙박물관 이용이 더 편리해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2년 12월 27일 박물관과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을 잇는 지하보도 ‘박물관 나들길’을 개통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간 3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세계 9위, 아시아 1위의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이 중 60%가 넘는 연간 18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방문하고 있다.

이들의 쾌적한 박물관 접근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시와 공동사업으로 지하철 이촌역과 박물관을 잇는 지하보도를 건설하게 된 것이다.

‘박물관 나들길’은 총연장 255m의 규모로 무빙워크가 설치된 160m의 직선 구간과 전시, 공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95m의 박물관 경내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들길은 2010년 4월 기공식을 가지고 약 2년 8개월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정혜숙 기자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하여 돌풍을 일으켰던 금강경 해설서가
우여곡절 끝에 소생되어 15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 이 책의 4대 특징 ▼

(1) 초등학교도 읽을 수 있습니다.
홍익초등학교 6학년 김모란

‘금강경은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설법(說法)하신 말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전에는 머리 아프다며 설설 피해갔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마음을 밝혀주는 주옥같은 108가지 이야기로 엮어진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이란 책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금강경과 그 외의 부처님 가르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2) 세상의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우안동 서원행 보살

절에 다닌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기록으로 미다보니,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실패, 엄마의 고관절 수술과 위암판정, 아들의 병원입원, 본인의 디스크와 심한 위궤양, 남편의 교통사고 등 끝없는 재앙에 오로지 죽고만 싶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어렵다는 금강경이 읽혀졌고 그것도 너무 재미있게 읽다보니 한 달만에 만성피부염이 나았고, 1년 만에 재앙이 본래 없음을 깨닫고 모든 난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3) 깨달음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기림사 중무스 법회보살

7년간 이 책을 100회 가까이 읽다보니, 매번마다 영적인 성장이 느껴져 너무나 놀라울 뿐이었다.

라즈니쉬 성자의 가르침과 세상의 모든 종교적 가르침 그리고 수많은 진리들이 모두 이 책에 들어 있음을 깨닫고 보니, 온 몸에서 전율이 올 때가 많았다.

도반이었던 비구스님의 출가동기도 바로 이 책이었다.

(4) 진리탐구도 가능합니다.
한양대 응용수학과 명예교수 임종록

이 책이 제시하는 명쾌한 금강경 해설은, 이제까지의 피상적이고 실천불가능하게 받아들인 금강경 이해를 말끔히 씻어주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어느 듯 금강경 독송이 즐거워지면서 수많은 잡념들이 홀연히 사라짐과 동시에, 생각의 세계를 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감득(感得)하면서, 원인모를 기쁨이 내면 깊숙이에서 분출되는 신선하고 색다른 체험으로 진리탐구를 하게 된다.

김원수 저 | 도서출판 공경원 | ₩19,000원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중동 38-4 | 전화 : 070-7720-6832